

120% 나와 선생 깨닫고,
120% 준비된 자만
그날에 나를 맞는다.

작성일 : 2012년 5월 3일(수)
작성자 : 이 윤주

[이 계시를 받은 날 학교에 다녀 와서 감사기도 하며, 저와 썩리의 모든 자들이 성자 본체를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하고 또, 선생님을 진정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마음 담아 하니예수님의 “적어라.”라는 말씀이 들려 적었습니다.]

****성자의 말씀****

나의 사랑하는 선생에 대해 알고 싶으냐.
이미 다 얘기했어.
그러니 하나하나 쪼개 다 말해 줄게.
첫째로 선생은 이 시대 사명자로서 나의 심부름꾼이다.
사랑하여 나와 일체 되었으니 나의 사랑의 심부름꾼이다.
그러니 내 육 되어 나의 일만, 내가 시키는 일만 한다.
그러니 얼마나 큰 인생이냐.
이 시대 태어난 모든 자 가운데
선생처럼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.
누가 감히 하늘의 육이 쉽게 될 수 있겠냐.
그러니 그 조건이 얼마나 크고 하늘같으냐.

두 번째로 시대의 기준자이며, 기도의 사명자다.
그러니 이 세상 육이 아니지.
이 세상 육과는 엄연히 다른 육이다.
이 세상 어느 누가
하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겠느냐.
만일 선생이 33년 전
그 예전 월명동 산골짜기에서 기준 세우지 못했다면
그 누가 이 시대 신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,
이 시대가 어찌 신부 시대가 될 수 있었겠냐.
또한 생명권에 거하게 될 자 누가 있었겠느냐.
그러니 선생을 좀 받아들여라.
선생의 가치성을 좀 깨달아라.

너희는 몰라. 아직도 몰라.
내가 이같이 말해 주고,
여기서 더 쪼개준다 해도,
모르는 자는 몰라.
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이다.
선연히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.

(“예수님, 비유로 더 쪼개 주세요.”)

내 재림은 자물쇠통이요, 선생은 열쇠요,
나 성자 본체는 자물쇠통이요, 선생은 열쇠다.
이 세상 모든 악, 모든 문제,
모든 것의 열쇠는 선생이다.
육이 자물쇠통이라서
육의 문제 또한 자물쇠통이다.
즉 사람의 지체를 얼굴, 손 나눌 수 있듯이
육이라는 범위에서 육의 문제가 포함된다는 말이다.
그러니 자물쇠통으로 자물쇠통 풀 수 있겠냐.
즉 육의 문제 육으로 못 풀단 말이다.
자물쇠의 열쇠가 필요하다.
자물쇠 열쇠는 영이다.
육의 문제는 오직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.
그러니 선생과 하나 되라는 것이다.
너희는 다 육이 아니냐.
너희의 재림의 문제와 휴거의 문제 풀 자는
열쇠인 너희 선생밖에 없으니까.
재림 문제 어찌 육적인 기성,
기독교에서 풀 수 있겠냐.
영의 문제인데.
오직 이 썩리밖에 없음이다.
그러니 제일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.
그러니 사탄들 가만 못 봐 날뛰지.
그러니 너희는 더욱더 각별히 조심해야 해.
모든 사탄들 악랄하고, 또 악랄하다.
기도해라. 모든 답은 기도다.
내가 기도해서 망한 자 한 명도 못 봤다.
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
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써라.
육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뭐하냐.
영은 장애가 있는데..
그러니 너희는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라.
그리고 성자의 기도기간 동안 회개다.
말씀 잘 이해 안 되는 나의 신부들은 들어라.

오로지 회개만이 길이다.
설거지 통. 싱크대 홀을 보아라.
마치 너희와 같다.
즉 이 말은, 너희가 육적인 것만 바라보며 사니,
영에는 죄가 쌓이는 것처럼,
너희가 음식을 먹고, 남은 음식물을 버리면
그 구멍이 다 꽉 차 버려서
물이 잘 안 내려가지 않느냐.
이와 같다.
너희의 죄가 너희 생각, 정신, 영에 쌓이니
물 같은 말씀을 줘도
음식물 쓰레기가 꽉 찬, 싱크대 구멍처럼
말씀의 성령의 물이 잘 안 내려가고, 늦게 빠져
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다.
회개다. 모두 다 회개다.
회개 안 되는 자들이 너무 많아 말한다.
정신 차리고 앞을 향해 가라.

요한복음 14장 2~3절

‘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
너희에게 일렀으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
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
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
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’

나의 사랑들아. 나의 신부들아.
온전해지자. 완전해지자.
사소한 것에 홀리지 말아라.
너희는 100%만 준비하면 안 된다.
사람에게는 늘 변수가 있고,
세상일에는 변수가 많으니,
120% 준비해 놔야
100%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.
그러니 성자의 기도 기간 동안
나를 맞이할 준비를 120% 해라.
그래야 100% 나를 잘 맞을 수 있음이다.
사랑하는 자들아.
항시 수시로 기도야.
2012년도가 마지막이다.
그렇게 생각해라.
서둘러라. 급함이다.
2012년 환란의 기간.
살아남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해서,
나와 사랑으로 거듭난 자뿐일지니라.

항시 기도다. 회개다.
항상 하는 말 더 절실히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한,
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 성자 본체다.
샬롬.